

축 사

향기로운 꽃향기를 지나면 생명이 더욱 약동하고 희망과 미래의 성취로 다가가는 푸르름이 뒤를 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고불총림은 산중은 물론 종도들의 공경으로 방장스님을 모시며 장래를 준비하는 경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환조사께서 웅장한 명승지를 알아보시고 산문을 여신 이후 1400여년 동안 각진국사를 거쳐 서옹스님에 이르기까지, 백양사는 선대의 원력과 덕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수행력마저 그윽한 모습으로 불자의 마음을 감화해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서옹스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참사람을 이루는 것이 누구나의 책무라 하셨으니, 비로소 전법제자로서 지선스님은 일생의 뜻을 따라 근념의 실천이 실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장스님이 계셔야 비로소 총림이라 할 것이며, 모든 수행자를 지도하시는 방장스님은 선 교 율을 겸비한 본분종사입니다. 이에 더하여 사회현상을 늘 통찰하시며 삶의 정의로움을 주창하셨기에 지선스님께서 고불총림의 방장으로 승좌하시는 것은 현시대를 아우르는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수행도량의 자부심을 근간으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사에 검소하고 몸소 실천하는 소탈함에서 대중들은 심지를 다듬고, 심지에 붙인 불빛이 온 사회에 비추이도록 총림의 울타리는 거두어 버리라는 당부에서 사회와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본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수행자의 뜻 깊음을 온 산하가 청명함으로 증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후학 제자들은 총림을 총림답게 만드는 진일보에 진력해야 합니다. 평생 정진을 근본으로 사회와 이웃을 바라보며 몸소 실천해주신 방장스님의 가르침대로 보살정신을 구체적인 삶으로 풀어내어 이웃의 현장에서 잘 지키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와 역사를 냉철

히 잃어가며 남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으로, 마음까지 부지런함을 지니도록 정진의 거듭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방장스님의 일생의 실천과 같이 정의를 위해 봉기하는 역사가 아니라 올바른이 지속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모두가 정진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수행도량의 위상에 더하여 사회와 이웃을 아우르는 편안함과 희망을 주는 총림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화합하여 수행과 공덕이 우거진 숲과 다를 바 없으니 진정한 총림의 위상을 모두가 우러르고 있습니다. 고불총림 방장으로 승좌하시는 지선스님의 지도 아래 현시대에 맞는 최고의 총림으로 중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년 4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